

# 전남 지방도 예산 줄어 ‘짚꼼공사’

### 화순 도암~장흥 유치 13년 동안 겨우 10km 진행

### 공사기간 최대 2배 ↑... 업체 자금난, 주민불편 가중

전남도의 지방도 사업 대상은 계속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줄어 도로망 확충이 지지부진하다.

또 부족한 재정 탓에 공사기간이 최대 2배 이상 장기화되면서 지역업체 자금난이 가중되고 지역주민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도로기반 시설이 미흡한 만큼 정부의 집중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33억원, 2012년 903억원에 달했던 지방도 사업 투자액은 2013년 713억원, 2014년 743억원으로 감소한 뒤 올해는 간신히 700억

원을 확보했다. 2011년까지 도로분야 국비가 300억~400억원이 지원됐으나 2012년부터 포괄사업비 형태인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도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일단 시급한 사업에 교부세를 사용한 뒤 지방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방도 예산이 줄면서 당초 예정된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2179억 200만원의 투입해 지난 2007년 착공해 2013년 준공예정이었던 장흥 유치~화순 이양(17.43km)의 경우 9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수준으로 사업비가 집행

될 경우 오는 2020년에야 완공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대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건설업체는 물가상승분에 급증하는 유지관리비에 허덕이고 있다. 하도급을 받은 중소기업들도 자금난에 부도에 직면해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건설업체 관계자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840억3600만원의 사업비가 예정된 화순 도암~장흥 유치 간 지방도(10.48km)의 경우 2006년에 착공해 2019년 준공될 예정이다. 1년에 1km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안공항 진입로(8.12km) 역시 공사기간이 10년으로, 전

남도 곳곳에 시작된 도로공사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준공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현재 추진중인 24개 지구(485억원), 설계 완료 후 미착공 지구(7138억원), 설계중인 지구(1580억원) 등 지방도를 현재 매년 투자액(700억원)으로 완공하려면 17.5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시·군도로도 크게 미흡한 전남도의 지방도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남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국감 추석 전후 분리 실시

### 9월 10~23, 10월 1~8일

여야는 올 국정감사를 추석연휴 전후인 다음달 10~23일과 오는 10월 1~8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말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올해 국감을 9월 4일부터 23일 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다소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0~23일, 10월 1~8일 국정감사 ▲10월 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되며, 각종 안전 처리를 위한 분회의 일자는 11월 5일, 26일과 12월 1일, 2일, 8일, 9일 등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분회의는 오는 28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애초 이달말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주여성들, 컴퓨터 배우기 열공

20일 오전 광주 서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한국어로 시집은 지 날 정도 지난 베트남, 필리핀 등의 이주여성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댓글사건이 해킹사건 잉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 위증혐의 기소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은 20일 검찰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광주일보 20일자 5면)한 데 대해 “자랑스러운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서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국정원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신상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권 의원은 “문해버릴 사건을 하나하

나 밝혀왔던 과정에서 수사의지를 가졌던 분들이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진재선 당시 주임검사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의지를 가진 사람을 방해하며 법정에서 디지털증거법칙을 소극적으로 적용, 증거능력을 부정해버린다. 댓글 사건도 이렇게 진행돼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3개의 IP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지만 검찰

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예전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수사의지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검찰이) 수사의지를 갖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 덕에 해킹 의혹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들 국정원 임무 과장이 사망해 증거능력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댓글사건은 해킹사건을 잉태하고 있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조건 유리 스토리 살리면 中 관광객 몰릴 것”

### 새누리 이정현 의원 국회출입 기자 간담회

### 총선 짧은충 호남 출마 설득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20일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과 관련, “여수 경도는 비록 늦게 시작했으나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다”며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출입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특히 “여수 앞바다는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군이 싸웠던 전적지로서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의 선조가 전사한 지역”이라며 “이 같은 스토리를 살리고 카지노 면세점까지 갖추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 “정승전 식약처장 말고도 젊고 경쟁력 있는 인사를 호남에 출마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제2의 이정현’ 탄생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역선택 ▲사실상 두 번의 선거 ▲신인인사 등용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새누리당의 전망이 암울하다”며 “또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광양항 활성화 문제와 관련, “85년부터 시작한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부터 원 포트 정책

으로 바뀌면서 부산항 위주의 투자와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광양항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동서 균형발전 차원은 물론이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나 파업 혹은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해 보완하고 대체할 항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서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위한 정부 재정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대 중국 무역이 늘고 북극항로가 개설될 것을 계기로 다시 광양항을 집중 개발하는 투포트 시스템으로 복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4월 컨테이너 크레인이 부산항은 47기가 있는데 광양항은 단 17개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졌다면 지금 그 배후 산업단지가 매우 탄실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초대형 선박 화물처리를 위해 반드시 24월 컨테이너 크레인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9월 출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엄기욱 교수 선임

### 인사청문회 9월 7일 실시



오는 9월에 출범하는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엄기욱(49)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제출 방식으로 모집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엄기욱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기존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발전연구원 소속 지역서비스지원사업단을 합쳐 새로 출범하는 광주복지재단을 3년간 이끌게 된다.

광주시가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격인 대표이사 선임에 의해 시의회(3명)·시장(2명)·이사회(2명)의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 후 재단이사회에 최종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의 의결한 결과 2명의 후보자를 이사회(광주시장)에게 추천해 엄 교수가 선임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등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의 협약사항으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엄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 상품안내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상담문의  
**(주)리즈골프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